

“중년 돼서야 첫 사극 도전 기왕이면 한명회 역 하고 싶었다”

‘광대들·풍문조작단’ 손현주

말에 밝힌 사고로 트라우마
황혼 로맨스에 도전하고파

“광대들: 풍문조작단”이 사실상 제 첫 사극이에요. 사고에 트라우마가 있어 그동안 피했거든요.”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배우 손현주(54)는 데뷔 이후 30년 가까이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그동안 사극을 멀리했던 이유를 털어놨다.

손현주가 자신의 “첫 사극”이라고 밝힌 영화 ‘광대들: 풍문조작단’은 조선 시대 팔도를 무대로 풍문을 조작하고 민심을 뒤흔드는 광대패 5인방에게 조선 최고의 권력자 한명회로부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세조의 미담을 만들어내라는 명을 받는다는 설정에서 출발한다.

오는 21일 개봉하는 이 영화에서 손현주는 세조를 왕위에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공신이자 지략가인 한명회를 연기했다.

“영화 사극은 처음이고, 드라마로도 거의 한 적이 없어요. 1991년 KBS 대하드라마 ‘삼국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말에 밝혀서 다쳤거든요. 그때 감독님이 ‘야 재치’ 이라더니고요. 몸도 마음도 아팠죠. 그 이후 사극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 같기도 했어요. 이후 4부작 드라마를 한 적도 있지만, 정적으로는 ‘광대들’이 처음이죠.”

그는 첫 사극 영화로 ‘광대들: 풍문조작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가 참신했다. 기왕 (사극) 하는 것이라면 한명회에 도전해보자 싶었다”며 “앞으로는 사극도 많이 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손현주는 “이번 영화를 통해 어느 정도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웃었다.

“말과 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말 타고 불에 들어가고 하더라



고요. 뜨겁고 두려웠어요. 너무 뜨거워서 귀 분장이 녹아내릴 정도였죠. 컴퓨터 그래픽(CG)이 아니었어요. 말 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을 보조출연자에서 조연사로 바꿔 달라고 건의했는데, 그런데도 다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어요. 나중에 모니터링 했더니 그림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말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이 없어졌어요.”

백선 사극이지만, 손현주가 연기한 한명회는 실존 인물인 만큼 좀 더 신경을 써야 했다.

손현주는 “그동안 수차례 그려진 한명회보다 덜 어렵게 만들고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배역 자체는 무겁게 있었죠. 한명회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 수염도 길게 하

고 뾰족 귀도 만들었어요. 칠삭둥이였지만, 기골이 장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안의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왜소하게 나왔지만, 이번에는 풍채가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손현주는 영화 속 광대패 리더 덕호를 맡은 조진웅과의 호흡을 자랑했다. 두 사람은 2009년 KBS 2TV 주말극 ‘술악국집 아들들’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조진웅뿐 아니라 세조역 박희순, 광대패 고창석 등 모두 친한 사람이라 현장에서 나를 형 대접 안 하고 친구처럼 지냈다”며 “(이렇게 친하면) 자칫 내용이 흔들릴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데뷔 초반 긴 명성시절을 겪은 손현주는 지난 30년 동안 드라마 ‘장밋빛 인생’(2005), ‘추적자 더 체이서’(2012), 영화 ‘숨바꼭질’(2013), ‘악의 연대기’(2015), ‘보통사람’(2017) 등 굵직한 작품에 다수 출연하며 연기 신(神)의 반열에 올랐다.

최근에는 악역과 특별출연을 자주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방송 중인 KBS 2TV 수목극 ‘저스티스’에서도 악역을 맡고 있고 특히 tvN 드라마 ‘시그널’(2016)에서 악역으로 특별출연해 화제가 됐다.

“시그널” 때 나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나중에 봤더니 제가 가장 나쁜 놈이더라고요? (웃음). ‘광대들’에서는 악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조 입장에서 한명회는 충신이죠.

그는 “황혼의 로맨스를 해보고 싶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저는 고두심·박원숙·정혜선 선배 등과 함께 연상의 여인을 사랑하는 연기를 해보고 싶어요. 40~50대 남자가 60대 이상 여성을 사랑하는 멜로가 나오면 왜 안 되나요?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입니다. 키스신도 별로 안 해봐서, (시켜주면) 사정없이 키스할 것 같아요. (웃음)”

/연합뉴스

‘같이편딩’ ‘런닝맨’ ‘선녀들’ ... 빛나는 역사예능

시청자들 “감동·교훈 갖춘 프로 많아지길”

일본 경제보복에서 비롯된 한일갈등이 좀처럼 봉합될 기미가 없던 요즘, 방송가에도 역사 예능 바람이 시작됐다.

18일 오후 5시 방송된 SBS TV ‘런닝맨’에서는 가족 비자금 600만원을 찾으면 승리하는 ‘가족 비자금 레이스’가 펼쳐졌다. 아버지는 6남매 비자금을 전액 가져갔고, 이방인이 이 돈을 훔치려 하는 상태였지만 아버지는 기억을 잃어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만 기억하는 상태였다. 게임 중 아버지의 친구가 이상화, 이종휘, 이시영으로 확인되면서 아버지의 신원이 독립운동가일 것으로 출연진은 추측했다. 이어 600만원은 우당 이회영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 데 사용한 독립자금이었다고 파악됐다.

스타 PD 김태호의 신작 예능으로 18일 오후 6시 30분 방송한 MBC TV ‘같이 편딩’은 첫 번째 편딩 프로젝트로 배우 유준상의 ‘태극기합 프로젝트’를 조명했다.

18일 방송에서는 일제강점기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덧대 그린 뒤 진관사 깊숙한 곳에 보관한 초월스님 이야기기 특히 시청자들을 울렸다. 초월스님이 광복하기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것을 들은 유준상 등 출연자들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스타 강사 설민석이 들려주는 태극기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들도 시청자들이 귀를 기울이게 했다.

방송 직후에는 프로그램 제목을 비롯해 ‘유준상 태극기합’, ‘네이버 해피빈’, ‘국기합’ 같은 주요 키워드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라 시청자 관심을 증명했다.

MBC TV는 18일 밤 9시 5분에는 더욱 본격적인 역사 예능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를 방송했다.

‘서울 다시보기’(부제: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로 꾸민 첫 회에서는 설민석, 전현무, 유병재, 최희서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품은 광화문, 경복궁, 덕수궁을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멤버들은 일제강점기 수많은 수난을 겪어야 했던 경복궁의 역사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특히 설민석이 꺼낸, 경복궁 궁전 전에 걸린 일장기 사진은 시청자들 마음도 강하게 울렸다.



‘런닝맨’



‘같이편딩’

사대문 안 궁공은 익숙한 곳들이지만, 18일 방송에서는 곳곳에 숨은 아픈 역사의 흔적들이 조명돼 교훈을 남겼다.

지난 시즌에도 탐사 여행을 통해 우리가 모른 다양한 역사를 조명해 호평받은 ‘선을 넘는 녀석들’의 복귀 자체를 반기는 시청자도 많았다.

시청자들은 역사를 테마로 한 예능이 반갑다는 반응이다. 네이버 아이디 ‘똥***’은 “위기를 기회로, 대한민국 일어나라”라고, ‘ryan****’은 “‘같이 편딩’ 편딩에 동참했다.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내 조국, 내 사랑”이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백종원, 터키서 미식방랑 ‘스트리트푸드파이터?’

tvN 내달 22일 첫방송

tvN은 다음 달 22일 밤 10시 40분 ‘외식업계 대부’ 백종원 대본코리아 대표의 미식 방랑 예능 ‘스트리트푸드파이터’ 시즌2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스트리트푸드파이터’는 백종원이 세

계 방방곡곡 숨은 길거리 음식을 찾아 떠나는 내용으로, 지난해 방송한 시즌1은 흥미로운 음식 이야기와 감각적인 영상미로 호평받았다.

시즌2 첫 여행지는 터키. 공식 포스터 속 현지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채 터키식 훗차 ‘차이’를 음미하며 행복해

하는 백 대표 표정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터키는 백종원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로 꼽은 장소로 그의 신혼여행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백종원은 “터키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 관광객이 가는 시간이 아까워 맛집 투어를 다녔다”라며 “지금 와서 보면 아까 화났을 만도 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연출은 ‘스트리트푸드파이터’ 시즌1과 ‘커피 프렌즈’를 만든 박희현 PD가 그대로 맡는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콩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웰컴2라이프(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팔도밥상 스페셜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나는...산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교육시리즈 55 특목 보합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겨북이 뉴스 50 우리말 겨루기(재)		2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와이드 코리아 플러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0 모두 다 콩따리(재)	00 고향건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덕화TV2 덕화다방	55 웰컴2라이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1~2부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오늘밤 김제동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	05 서거 1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김대중	00 리틀 포레스트
[11]	35 UHD 슈퍼 40 거리의 만찬(재)	10 지식채널E 프로젝트 벵이	05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KBS 뉴스 40 KBS 결탁 다큐멘터리(재)	0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00 100분 토론	4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EIDF 2019
07:00 로보가 폴리	월드 쇼케이스-글로벌스 운행기
07:15 꼬마버스 타요	13:15 EIDF 2019
07:30 뽀롱뽀롱 뽀로로	도시, 그리고 건축-빛의 건축가 렌조 피아노
07:45 페파 피그	14:30 꼬마버스 타요(재)
08:00 덩동당 유치원1~2	15:00 출동! 피자마 삼총사
08:30 몬가트	15:30 뽀롱뽀롱 뽀로로(재)
08:45 최고! 호기심딱지	15:45 출동! 슈퍼원스(재)
09:00 마사와 곰	16:00 최고! 호기심딱지(재)
09:30 원더볼스	16:15 세미와 매직큐브
09:40 극한직업 스페셜	16:30 덩동당 유치원1~2
10:30 한국기행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 子** 36년생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세이다. 48년생 현상 유지만 해도 된다. 60년생 고르게 처리해야 용이함을 꾀한다. 72년생 다각적인 분석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84년생 원칙대로 처리한다면 면액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6, 10
- 丑** 37년생 단원하게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49년생 문 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61년생 주관적인 심리와 객관적 사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73년생 처음부터 뚜렷이 구분 될 것이다. 85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니 구해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0, 01
- 寅** 38년생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다. 50년생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62년생 징후를 인식하라. 74년생 뒤돌아 보려하지 말고 앞만 보고 뛰어들라. 86년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대응하라. 행운의 숫자 : 18, 77
- 卯** 39년생 타격적인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51년생 준수하지 않는다면 위험에 노출 될 것이다. 63년생 작은 것을 취하려다가 큰 것을 버리게 된다. 75년생 상하간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다. 87년생 파헤치는 것보다는 조용히 덮어 두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94, 95
- 辰** 40년생 명료한 문제이니 간단하게 처리해도 되는 대목이다. 52년생 위상을 달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64년생 시도하면 기회가 보인다. 76년생 학수고대 하여 왔던 회소식을 접한다. 88년생 예상했던 바보다 훨씬 복잡하고 난해해졌다. 행운의 숫자 : 46, 93
- 巳** 41년생 치열한 속에는 후유증도 따르게 되어 있다. 53년생 소신성 행하라. 65년생 조용히 암모노색해야 만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단계이다. 77년생 음양이 교차하며 기압을 이룬다. 89년생 소비적인 요소를 청산해야 자기 발전을 꾀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3, 71

- 午** 42년생 망심하다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 된다. 54년생 발상이 참신하다면 결과가 길할 것이다. 66년생 진중할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8년생 흑과 백으로 명암을 분명히 하라. 90년생 우선시 해두어야 할 바가 얽혀 있었다. 행운의 숫자 : 09, 58
- 未** 43년생 연결 되어 있으니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55년생 순탄하다. 67년생 활동에 제약은 받을 수도 있다. 79년생 아무리 힘들더라도 당일에 마무리 하는 것이 이롭다. 91년생 주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경험을 살려서 대처한다면 무난하겠. 행운의 숫자 : 91, 96
- 申** 44년생 이면의 가치를 읽을 줄 알라. 56년생 확산 일로에 놓이면서 폭발적인 동력을 띤다. 68년생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근심이 보인다. 80년생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주 어지지 않았던 돌파구가 보인다. 92년생 잃었던 것을 찾거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행운의 숫자 : 04, 45
- 酉** 45년생 돈이 없어서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57년생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니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69년생 초심을 잃지 말라. 81년생 적나라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리라. 93년생 현상이 보이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50, 18
- 戌** 34년생 꾸준해야 실효적인을 인식해야 한다. 46년생 원칙과 기본을 중시 한다면 안전함을 도모할 수 있다. 58년생 급한 결정은 오히려 퇴보시킨다. 70년생 새로운 요소가 개입되면서 혼란스러워지리라. 82년생 회복세를 띠게 될 것이니 차분히 응대하라. 행운의 숫자 : 99, 84
- 亥** 35년생 강력하게 처리해야 효과를 보겠다. 47년생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59년생 의식하고 있는 바보다 훨씬 못 미치니 안심해도 된다. 71년생 희귀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83년생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속단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48, 43